

학교체육진흥을 위한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 개발 담론

유정애(중앙대학교)

Learning Objective

- 미래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할 사람들이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전문성'을 습득

→ '준비된' 교육과정 개발자 양성

I. 교육과정 용어 이해



1. 담론(Discourse)

- 정해진 틀에 구애 받지 않고, 어떤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

2. 개발(또는 개정)

- 교육과정 개발(development)

→ 교육과정 안(案)을 만드는 것

*나무로 만들어 단단히 안정시켜놓은 놓은 것→책상, 책상에서 글을 쓰거나
생각하므로 案(안)을 문서(文書)나 생각 따위의 뜻으로 씀.

(예) 법을 만든다= 입법

- 교육과정 개정(revision)

→ 기존의 문제(problem), 제한(limitation), 약점(weakness)
등을 개선하는 것

(예) 법을 개정한다 = 개정 법

3. 교육과정(curriculum)

- 가르치는 배워야 할 내용
- 국가 교육과정 문서는 내용물의 본질보다는 그 내용물들을 담아내는 틀을 결정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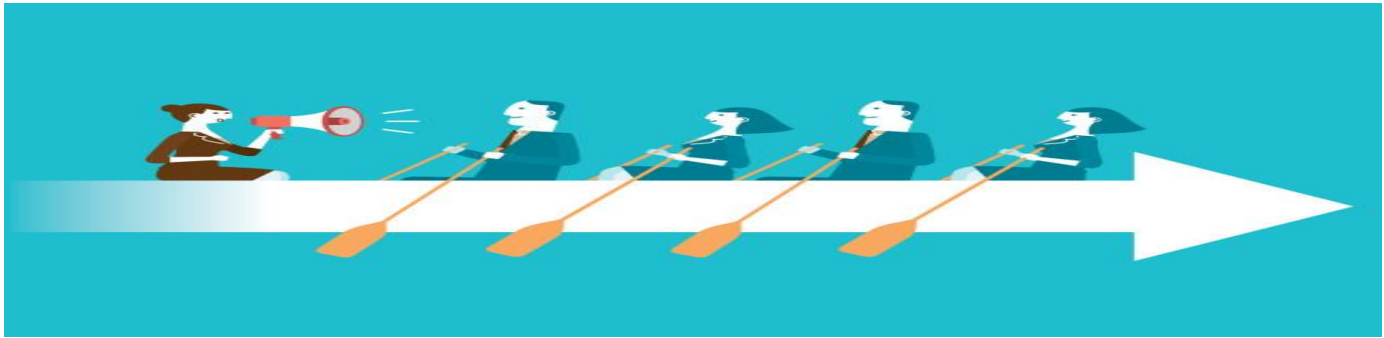
4. 국가수준(National Level)

- **국가는 1개**

- 국가 대표

- 국가를 대표하는 수준이 되어야 함

II.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의 역할



1. [대외] 국가대표다운 위상 정립
2. [대내] 체육(not, 체육교과)의 미래 발전 선도

1. 대외적 역할

- 국가대표다운 위상 정립

(1) 체육교과의 명백한 정체성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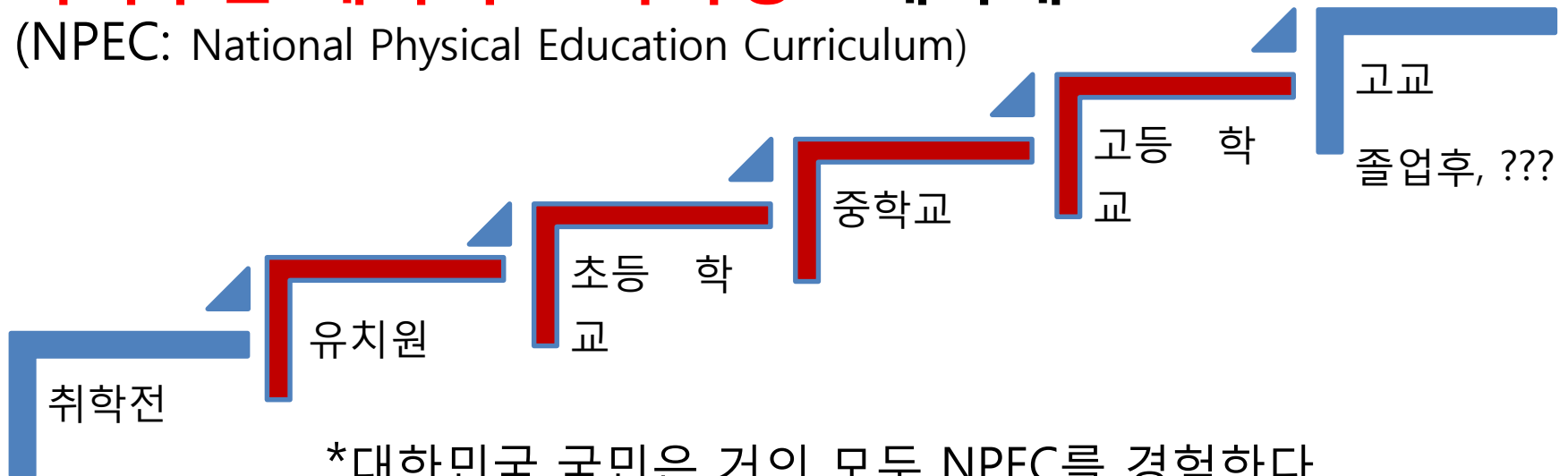
(2) 교육계의 타 교과와 대등한 관계 유지

→ 동일한 수준의 언어(language) 사용과, 체육에 관한 통역 활동

2. 대내적 역할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 = 체육계

(NPEC: National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대한민국 국민은 거의 모두 NPEC를 경험한다.

III.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오해 & 오개념**



오해 & 오개념 예시모음

1. 외국(특히, 선진국)의 교육과정은 우리나라보다 우월하다.
2.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발에서는 교사들이 주인공이다.
3.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요구와 흥미 등을 반영해야 한다.
4.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은 체육관계자들에 의해만 들어진다.
5. 현재의 체육과 르네상스(예: 수업시수)는 체육계의 주장 및 부단한 노력을 만들어진 것이다.

오해 & 오개념(1)

1. 외국(특히, 선진국)의 교육과정은 우리나라보다 우월하다.

→ 대한민국의 개발체제 우수성

→ 외국의 사례 분석 이유?

오해 & 오개념(2)

2.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발에서는 교사들이 주인공이다.

→ 전 세계적으로 '국가(또는 주)수준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교사들은 교육관계자 집단 중의 하나로 역할을 수행한다.

→ 교육과정 개발에서의 주인공은 교사가 아니라, 학습자(의 교육적 성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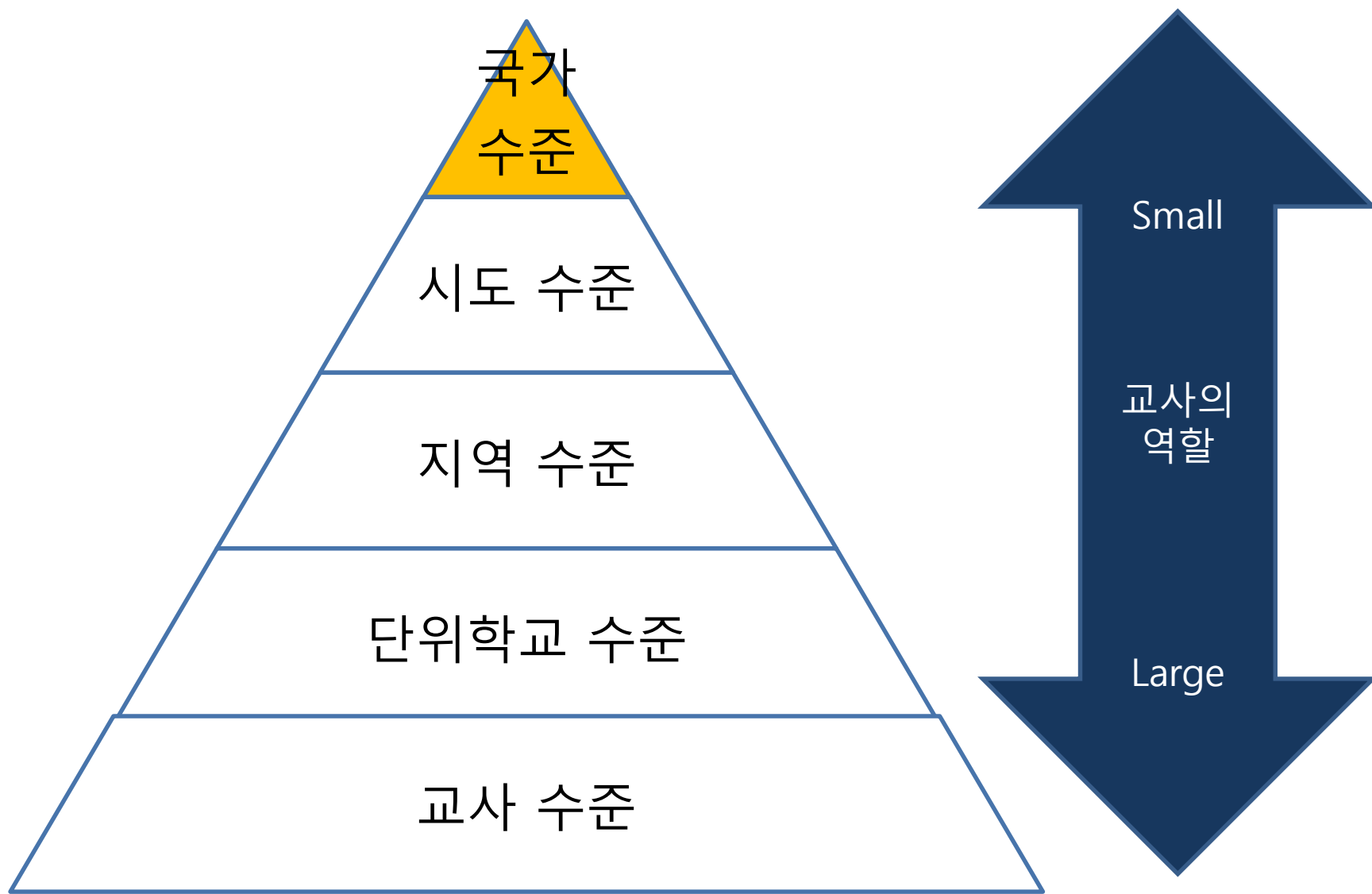
오해 & 오개념(3)

3.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요구와 흥미 등을 반영해야 한다.

→ 국가수준(X), 교사수준(O)

→ 축구경기, 피구경기 등(12년)

각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



오해 & 오개념(4)

4.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은 체육관계자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교육부 + 교육과정 전문가 + 체육관계자 + 국민(학부모/시민단체 등)

오해 & 오개념(5)

5. 현재의 체육과 르네상스(수업 시수)는 체육계의 주장 및 부단한 노력을 만들어진 것이다.

→ 학교 폭력 사건, 학교 부적응아 비율 등의 청소년과 관련된 국가사회적 문제가 지속 발생

(예) 입시치중, 학력 강화에 도움된다는 국가사회적 관심

IV.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 개발 지침(?)



[지침 1] 원리 & 원칙

***교육과정 개발은 문서 자체 개발이지만, 운영을 고려하는 해야 함**

- (1) 교육과정 문서: 원리 개발
- (2) 교육과정 운영: 원칙 정립

[지침 2] 공교육 vs. 사교육

- 공교육으로서의 체육 역할(?)

(예) 학교 방과후 교육, 문화센터 스포츠활동, 태권도장
등등

*국가사회적/공공의 발전에 필요한 교육 내용 투입

[지침 3] 공통교육과정 vs. 선택교육과정

- 국가사회적/공공의 발전에 필요한 **교육 내용 중에서.....**

(1) 체육교과의 공통 교육과정(초3-중3)

→ 모든 학습자에게 필수로 교육해야 할 내용

(예) 필수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비타민, 물

(2) 체육교과의 선택 교육과정(고1-고3)

→ 학습자들이 원하는 교육내용을 선택... 그러나, 100% 자유선택(X)

(예1) 1끼 식사 → 한식, 중식, 일식 등 선택

(예2) 1끼 식사 → 지방, 무기질, 단백질 등 선택

[지침 4] 내부관계자<외부관계자

- 외부관계자
 - 체육 교과가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지속적으로 어필 어떻게? 그들의 언어(language)로....

V. 경험자의 조언: 절대 지켜야 할 것



1. 교과로서의 체육에 대해 알기

가. 내부자(1): 교과로서의 '체육'에 대한 이해???

나. 내부자(2): 교과간 관계에 대한 이해???

2. 학교 안 체육 vs. 학교 밖 체육 구분하기

가. 학교 안 vs. 밖의 담을 잘 지키기

나. 1인 1기의 숨은 뜻 잘 파악하기

3. 외부 관계자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가. 대영역 수

나. 내용 체계표

4. NPEC의 독자를 위한 문서화하기

가. 체육의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하는
작업에 게으름피지 말 것 - 무조건... 첫걸음

나. 첫걸음 → 역사(History)가 됨을 기억

*국가 교육과정의 문서를 근사하게 포장하고, 포장 속의 선물 내용을 실속 있게 채우는 일(유정애, 2010, 15쪽)

Q & A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010, 제17권, 제2호 pp. 1-20
Korean Journal of Sport Pedagogy
2010, Vol. 17, No. 2, pp. 1-20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 개발 책임자의 개정 부담에 대한 셀프 연구*

유정애(중앙대학교)**

국문초록

본 글은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 개발자가 개정 과정 동안 경험한 개정 부담에 관한 셀프 연구이다. 본 글은 국가 교육과정 개발 책임자라는 한 개인이 경험한 자아 세계, 인식 과정, 관계 및 맥락이 상호작용하는 체육과 교육과정 개발 공간과 이 상호작용이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미친 영향에 대한 탐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글은 셀프 연구를 통해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발 책임자의 살아있는 인식과 경험을 내러티브 형태로 기술하고 분석하였다. 개발 책임자에 대한 자서전적인 방법으로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가지고 있었던 부담감을 반성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현장 텍스트를 작성하고 이 텍스트들을 반복적으로 읽어가면서 연구 텍스트를 구성해 가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수집된 텍스트 자료들은 Connolly와 Clandinin(1990)이 제시한 분석 단계(넓게 보기,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이야기하기, 다시 이야기하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글에서는 4가지 부담감이 논의되었다. 즉 국가수준 교육과정 문서에 체육의 다양한 가치를 기술해야 한다는 부담,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 내용 틀을 전철해야 한다는 부담,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 내용의 학년별 체계를 고수해야 한다는 부담,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을 높여야 한다는 부담이 심층적으로 기술되었다.

주요어 : 국가 교육과정 개발자, 개정 부담, 셀프 연구, 체육 교육과정

I. 들어가는 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개발은 교육과정 문서(curriculum document)를 만드는 과정이지만, 그 문서는 문서 그 이상의 교육적 및 사회적 의미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점으로 인해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수행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지속될 연구 분야이다.

지금까지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연구는 총론을 비롯한 여러 교과에서 다양한 연구 주제로 수행되어 왔다. 이 중,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대한 연구'는 교육과정 이해 연구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이 점은 체육과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국내의 경우 체육과 교육과정 개발 과정

J. CURRICULUM STUDIES, 2011, VOL. 43, NO. 1, 87-108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A self-study of a national curriculum maker in physical education: challenges to curriculum change

JEONGAE YOU

This paper captures a national curriculum maker's experiences of revising the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in South Korea. A self-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make known the chairperson's experiences concerning the various obstacles encountered in revising the national curriculum and to offer previously unseen insights afforded by the curriculum maker's personal reflections. This study specifically offers a detailed analysis of four challenges the national curriculum maker encountered: (1) personal obstacles encountered as a young female chairperson, (2) environmental obstacles encountered as a marginally positioned chairperson, (3) professional obstacles faced as an innovative chairperson, and (4) institutionalized obstacles related to being named the official chairperson. In this self-study conducted in the narrative inquiry tradition, several important findings emerge about the nature of curriculum making and how curriculum making transpires at a national level.

Keywords: self-study; national curriculum; curriculum making; physical education

My writing of this paper was triggered by two doctoral candidates who interviewed me about the processes and products of decision making surrounding the newly revised national curriculum in South Korea. During the interviews, I realized there was a lack of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insiders and outsiders concerning how curriculum making takes place at the national level. Consequently, these interviews compelled me to reflect on the revision process I experienced and to inquire into different positionings and perceptions between the national curriculum making group members and me, the chairperson of the curriculum revision committee. My inquiry and willingness to publicly reveal my lived experiences in the national curriculum making during 2005-2007 were spurred by the self-studies of Craig (2006, 2008), who demonstrated how to make one's personal perspectives legitimate and valuable. Through 'self-study', I decided to make public my experiences of the chairpersonship and to assist curriculum theorists and practitioners in correspondingly making sense of their experiences in curriculum making.

Jeongae You is associate professor at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Education,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221 Heukseok-dong, Dongjak-gu, Seoul, 156-756, South Korea; email: jayou@cau.ac.kr. Her areas of interest include curriculum development and physical education in teacher education.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ISSN 0022-0272 print/ISSN 1366-5839 online ©2011 Taylor & Francis
http://www.informaworld.com
DOI: 10.1080/00220272.2010.516023

* 이 논문은 2010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jayou@cau.ac.kr